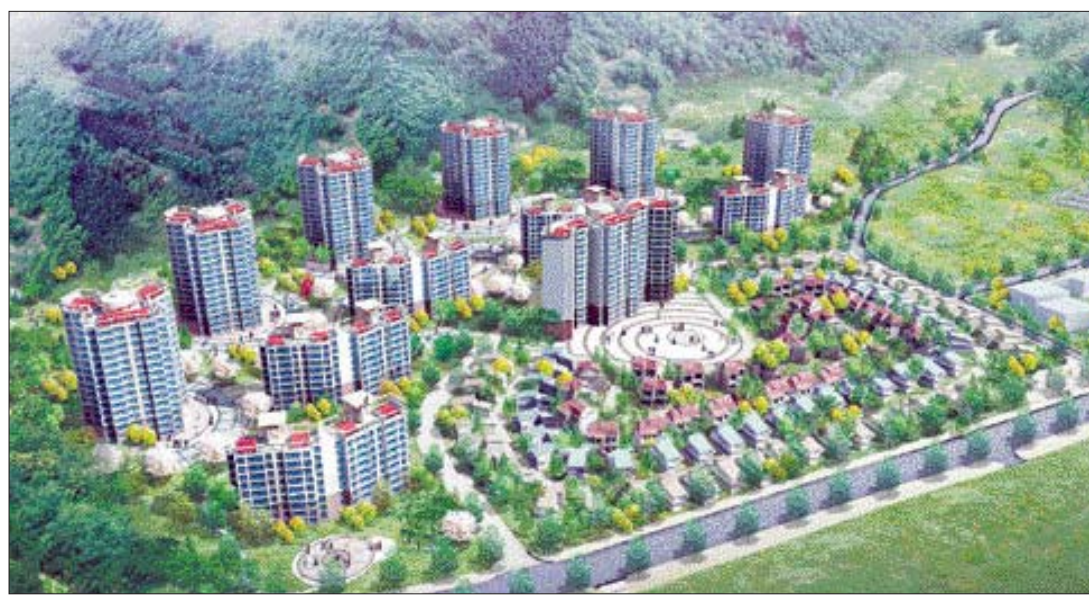


자족형 웰빙타운 웰파크 시티 은퇴자들의 파라다이스

사람들은 누구나 은퇴 후 안락한 삶을 원한다. 대도시 인근의 공기 좋은 산 기슭에 그림자같은 집을 짓고 골프나 낚시 등을 즐기면서 가족이나 친지와 함께 여생을 보내는 것이 도시민들의 꿈이다. 여기에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의료시설이 갖춰지고 소일거리가 되는 일자리가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일 것이다.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 그렸던 무릉도원(武陵桃源)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국내 최고 수준의 실버타운 조성 기업 서울시니어스타워(주)가 19일 '도원경'같은 마을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과 함께 고창군 석정리 석정은 천지구에 은퇴자를 위한 웰빙형 종합건강타운 '웰파크시티'를 건설하는 것.



고창 석정리 154만㎡ 조성 병원·골프장·스파 들어서 일자리 600개 입주자 제공

우선 웰파크시티에는 종합병원 규모의 온천휴양병원과 건강검진센터, 성인병센터, 온천재활센터 등이 들어서 전문가들이 입주자 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처방으로 노후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도와준다. 연1회 무료 종합검진(부부기준)과 24시간 응급 의료지원 서비스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온천스파리조트에는 스키존(바데풀·아쿠아탕·찜질방·월벵테라피)과 워터파크(어린이풀·유스풀·슬라이드·아워풀) 외에 헬스클럽과 건강관리실, 운동처방실이 있는 건강센터가 함께 들어선다.

웰파크시티 내에 들어서는 골프장의 경우 골프클럽 입주자에게 주중 무료 및 주말 50% 할인, 월 3회 주말라운딩 보장 혜택이 주어지며 실버타운 및 아파트 입주자도 주중 5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산림욕장을 비롯, 스파·헬스클럽·수영장·찜질방 등 건강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문화공연장·커뮤니티센터·도서관 등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입주 주민들은 골프·스마·낚시 등 다양한

레저시설은 물론 서울시니어스타워의 연계시설인 설악 오색그린야드호텔(복합온천휴양지)과 건설을 추진 중인 제주 중문 휴양단지 회원대우도 받게 된다. 입주자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웰파크시티에는 은행·우체국·파출소·금융기관 등 공공시설이 유치되며 아울렛 명품점, 건강음식점, 공연장, 마을회관, 경로당, 영유아보육시설, 지역특산물, 농산물 판매장 등이 들어선다.

특히 웰파크시티는 다른 실버타운과는 달리 일자리를 원하는 입주자들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니어스타워(주)는 웰파크시티 내 제반 시설에 50여개 업종 6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특기 및 경력을 가진 입주자에게 취업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입주자가 펜션이나 호텔, 단지 내 상가시설의 우선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접 또는 위탁 운영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밖에 웰파크시티는 접근성이 뛰어나다. 서해안 고속도로 고창IC에서 10분, 호남고속도로 백양사IC에서 15분 거리에 있으며 고창~장성~담양 간 도로 개통으로 광주에서도 30분이면 갈 수 있다. 고창군도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웰파크시티 입주자들에게 세금(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이곳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생활에 아무런 불편 없이 최소비용으로 재활치료 등 각종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휴양·레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그야말로 주거·여가·건강·레저·취업 등을 희망하는 40대 이상의 조기 은퇴자와 고령 은퇴자들을 위한 이상향인 것이다.

한편, 고창군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와 관광객 유입이 늘면 연간 수천여원의 경제수익이 생기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비신청 : 02-2668-5300, 062-361-3171, 063-562-5355.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종균 서울시니어타워 대표이사겸 송도병원 이사장

美·獨 등 선진국 견학 20여년간 실버타운 공부

서울시니어스타워(주)와 모체인 송도병원의 이사장인 이종균(58) 박사는 조선대 의예과를 졸업한 외과전문의다. 이 이사장은 지난 1981년 서울에 응산외과를 개원하면서 개원의로서 첫 발을 내디뎠고 1987년 서울 중구 신당동에 대장항문전문병원인 송도병원 문을 열어 본격적인 병원 경영의 길에 들어섰다. 이 이사장의 뛰어난 수술 실력과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송도병원은 낱말이 발전했고 2000년 본원을 증개축했다. 나아가 이 이사장은 2001년 경기도 하남 송도병원, 2002년 12월에는 서울 강서송도병원, 2003년 11월 경기도 양평송도병원, 2007년 12월엔 몽골 울란바토르에 송도병원을 잇따라 개원하는 등 병원사업을 꾸준히 확장했다. 현재 본원인 서울 신당동 약수송도병원은 대장항문 전문의만 30여명을 포함, 55명의 전문의가 진료하는 대형 병원이다. 이 이사장이 실버타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초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아침 숙소 근처 가게에서 한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빵 한 조각과 콜라 한잔을 놓고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 충근했는데 퇴근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는 1992년부터 주말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실버타운 경영을 배웠으며 미국과 독일 등을 방문하며 선진국의 실버타운을 견학했다. 이처럼 20여년 동안 실버타운 공부를 한 이 이사장은 송도병원 본원 옆에 부지를 확보, 1998년에 도심형 실버타운인 서울시니어타워의 문을 열고 실버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실버타운 전문업체 '서울시니어타워'

도심형 실버타운 성공 개인별 운동처방으로 건강관리 확실한 믿음

전북 고창에 웰빙형 은퇴자 마을 '웰파크시티'를 조성, 운영할 서울시니어스타워(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실버타운 전문업체다. 선진국 실버타운 연구를 바탕으로 3월 현재 서울 중구에 서울타워(144세대), 서울 강서구에 강서타워(142세대)와 가양타워(419세대), 경기도 성남시에 분당타워(254세대) 등 4개 실버단지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전체 규모는 1천여 가구에 입주자 1천 500여명. 25년 전통의 송도병원을 모기업으로 하는 서울시니어스타워(주)는 지난 1998년 신당동 서울타워(144세대)를 시작으로 실버타운 사업에 본격 뛰어 들었다. 이후 2003년 3월에 강서타워, 8월에 분당타워 등을 차례로 분양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실버타운 전문업체로 발돋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시니어스타워(주)는 기존 실버타운이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점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에 위치하도록 해 입주자들을 외롭지 않도록 한 것에 성공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중교통과 인근 편의시설의 이용이 쉽고, 가족이나 친지 등 외부와의 교류도 활발히 이어갈 수 있어서 은퇴 후 나타나는 공허감을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건강 관리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도 성공의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최초로 운동처방과를 개설한 송도병원에서 개인별 운동처방을 내려 입주자들의 노인성질환과 성인병 증상을 꾸준히 예방·관리하고 재활치료·수중치료·유산소운동·에어로빅·레크리에이션 등을 연령·질병에 따라 개인별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시설과 공용시설 하나하나에 노인공학적인 개념을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모든 동선을 최소화하여 노년층의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으며 건물 내부는 물론 외부 이동 통로에도 복도 폭을 넓히고 문턱을 없애 거동이 불편한 회원이나 휠체어 이용회원의 불편도 최소화했다. 방과 화장실에는 비상벨이, 거실 내부에는 동작감지센서가 설치돼 장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곧장 상주 간호사에게 경보가 전해진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원광신협

신협 회원권심리

신협 사업자 2,000만원까지 대출

신협 비과세 혜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광주원광신협

UP 빌더

건물의 수동과 가치기

ITALO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신협 회원권심리

UP 빌더